

K리그 전반기... '눈에 띄는' 기록들 다채

전북현대, 슈팅 많이 때리고 넣어... 로페즈, 역대 최단시간 득점·최고령 득점자 '이동국'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이 전반기를 마치고 짧은 휴식기에 들어갔다. 팀당 23라운드를 마쳤다 뜨거운 열기만큼 다양한 기록들이 쏟아졌다.

조나탄(수원)은 프로축구 최초 4경기 연속 멀티골을, 울산은 프로출범 후 통산 500승을 고지에 올랐다.

◇조나탄 '4경기 연속 멀티골'... '데얀 6번째 헤트트릭'

올 시즌 가장 핫한 선수는 단연 조나탄(수원)이다.

조나탄은 올 시즌 K리그 최초 4경기 연속 멀티골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했다.

프로축구가 1983년 출범한 후 34년 만에 나온 기록이다. 종전 연속 멀티골 기록은 2001년 김도훈, 2011년 데얀이 기록한 3경기였다.

조나탄은 지난 12일 인천전(2골), 15일 포항전(2골), 19일 전남전(3골), 23일 상주전(2골)에서 멀티골을 기록했다.

조나탄과 함께 득점 경쟁을 펼치고 있는 데얀도 개인 통산 6번째 헤트트릭 기록을 쌓으며 9시즌 연속 두자릿수 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데얀은 지난 19일 인천전에서 자신의 여섯 번째 헤트트릭을 기록했다.

K리그를 통틀어 6번 헤트트릭을 기록한 선수들은 데얀과 김도훈, 사사 3명이다. 또 데얀의 이번 헤트트릭은 K리그 통산 최고령 선수 헤트트릭(35세 11개월 22일)에 해당한다. 기존 기록의 보유자는 김도훈(35세 1개월 10일)이었다.

◇전북, '슈팅 가장 많이 때리고 많이 넣었다'

전북은 올해 K리그 클래식 23경기에서 슈팅을 322회나 때렸다. 12개 팀 중 최다



↑전북의 로페즈는 클래식 역대 최단시간 득점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최고령 득점자 전북현대 이동국

기록이다. 이 중 유효슈팅은 171회였다. 이 가운데 43개를 득점으로 연결시켰다.

2위는 울산으로 총 289회(유효 150회)의 슈팅을 기록했다.

최다슈팅을 기록한 선수는 울산의 오르사(80회)다. 그 뒤로 조나탄(79회)과 양동현(포항67회) 순이다.

특히 전북의 로페즈는 클래식 역대 최단시간 득점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로페즈는 지난 18일 상주전에서 전반 시작 18초만에 골을 넣으며 클래식 역대 최단시간 득점 2위에 올랐다.

또한 올 시즌은 유난히 후반 막판 골이 많이 나왔다.

이번 시즌에 후반 40분 이후 터진 골은 총 47골이다. 전체 371골 중 무려 12.7%다. 후반 40분 이후 가장 많은 득점을 한 팀은

서울, 포항, 제주, 수원으로 각각 6골씩을 기록했다.

지난 19일 열린 22라운드 6경기에서는 무려 22골이 터지며 올 시즌 하루 최다골을 기록했다.

특히 이날 수원외의 조나탄과 서울의 데얀이 동시에 헤트트릭을 기록하며 K리그 클래식 최초로 하루에 두 번 헤트트릭이 나오는 진기록도 달성했다.

이 날 경기를 포함해 7월에 열린 K리그 클래식 36경기에서는 총 108골이 터지며(평균 3.00골) 풍성한 골 잔치가 벌어졌다.

◇'최다도움' 염기훈... '최고령 득점자 이동국'

염기훈(수원)은 올 시즌 전반기에 7개의 도움을 추가하며 수원 소속으로만 총 72개의 도움을 기록했다.

전반기 최고령 득점자는 전북의 이동국(1979년 4월 29일생)이다.

이동국이 지난 23일 서울을 상대로 기록한 골은 38세 2개월 24일만에 올린 득점으로 기록됐다.

최연소 득점자는 수원의 유주안(1998년 10월 1일생)이다. 유주안은 지난달 25일에 강원을 상대로 최연소 득점(18세 8개월 24일)을 기록했다.

올 시즌 전반기 최단신 헤딩골은 서울의 고요한(170cm)이 지난 19일 인천을 상대로 기록한 골이고, 최장신 골은 전북의 김신욱(196cm)이 차지했다.

김신욱은 울산과 상주를 상대로 프리킥 골을 한 골씩 넣으며 헤딩 뿐 아니라 발에도 능한 선수임을 입증했다.

/김민근기자

엑소, 정규 4집 '더 워' 빌보드 월드앨범 차트 1위

한류 그룹 엑소가 정규 4집 '더 워'로 세계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6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엑소는 '더 워'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했다.



또 이번 앨범은 빌보드의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도 87위에 올랐다.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는 타이틀 곡 '코코넛'이 2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전야(前夜)' 8위, '포에버' 2위 등에 랭크됐다.

앞서 엑소는 이번 앨범으로 아이튠즈 종합 앨범 차트 세계 42개 지역 1위를 비롯해 애플뮤직 종합 앨범 차트 18개 지역 1위 및 39개 지역 10위에 오르는 등 인기를 과시한 바 있다.

중국어 유명 음악 사이트인 샤미뮤직의 한국 음악 차트에서도 8일째 1위를 달리고 있다.

한편 엑소는 이날 MBC 뮤직 '쇼 챔피언' 등을 통해 '코코넛' 활동을 이어간다.

/뉴시스

MBC, 지상파 최초 격투기 예능 프로그램 방송

MBC가 지상파 최초로 격투기 예능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MBC는 로드FC(대표 정문홍)와 손잡고 '겁 없는 녀석들'을 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2040 연연인 멘토들이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일반인과 팀을 결성, 100일간 격투기 무대 데뷔에 도전하는 과정을 담는다.

MBC는 "사회에 짜들어 울분을 찬 요즘 세태를 반영하여 사회나 학교에서 소외받고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과 직업의 귀천 없이 취업준비생, 학생, 경비원, 환경미화원, 의사, 변호사, 경찰 공무원 등에게 희망을 갖고자 한다"며 "100일 동안의 도전을 통해서 참가자들에게 꿈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최후의 1인에게는 우승 상금과 함께 로드FC 프로 파이터로 데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운동 경력이 없어도 만 15세 이상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하에 참가가 가능하다. 내달 20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참가 지원서는 MBC 홈페이지와 로드FC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메일(mbdteam2017@naver.com)로 지원하면 된다.

'겁 없는 녀석들'은 오는 10월 방송예정이다.

/뉴시스

U-19 여자 농구대표팀, FIBA월드컵 16강 일본과 격돌

U-19(19세 이하) 여자 농구대표팀이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 16강에서 숙적 일본과 만난다.

한국은 2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우디네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C조 3차전에서 프랑스에 53-63으로 패했다.

조별리그에서 3패를 당하며 조 4위에 머문 한국은 오는 26일 일본과 16강에서 맞대결을 펼친다.

일본은 D조에서 호주, 헝가리, 멕시코를 차례대로 꺾고 조 1위로 16강에 올랐다.

박지현(충의여고)이 14점, 4개의 어시스트와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분전했지만 리바운드에서 27-56으로 밀렸다.

/김민근기자

펜싱 여자 사브르 대표팀, 세계선수권 단체전 사상 첫 '은메달'

한국 펜싱 여자 사브르 대표팀이 2017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사상 첫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지연(익산시청), 서지연·윤지수(이상 안산시청), 황선아(익산시청)로 구성된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26일(한국시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대회 단체전 결승에서 이탈리아에 27-45로 패하며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렀다.

비록 금메달을 따내지는 못했지만 이번 은메달은 기대 이상의 성과다.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세계선수권 단체전에서 사상 처음으로 메달을 따냈다.

전날 남자 사브르 대표팀의 금메달에 이어 여자 사브르 대표팀까지 은메달을 거머쥐면서 2018 카타르아시아네이션스컵과 2020 도쿄올림픽에서의 전망을 밝혔다.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16강전에서 중국을 45-27로 꺾었고 미국과의 8강전을 접전 끝에 45-41로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한일전으로 펼쳐진 준결승전에서 한국은 45-32로 승리하며 결승전에 올랐다.

팀 랭킹 1위인 이탈리아는 압도적인 실력을 뽐내며 접수를 쌓았다. 여자 사브르 대표팀 역시 사력을 다했지만 이탈리아의 벽은 높았다.

한편 남자 에페 대표팀은 16강전에서 에스토니아에 38-39로 패해 8강 진출에 실패했다.

대표팀은 9~16위 순위를 거쳐 진출한 9·10위 결정전에서 체코를 45-35로 누르고 9위로 대회를 마쳤다.

/김민근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